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일본 아리아케해에서 만난 '운저리'와 '대갱이'

규슈 북서부에 있는 바다 아리아케해(有明海).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등 4개의 현으로 둘러싸인 규슈 최대의 만이다. 평균 수심 20m에 조수 간만의 차가 6m에 달해 간조 때가 되면 광활한 갯벌이 드러난다.

나는 이 바다를 유난히 좋아한다. 아리아케해를 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우리와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주식 김 양식과 바지락 양식은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꽃게, 바다, 갯가재, 새우 등의 대표 어종은 우리 서해의 것과 너무 비슷하다. 해안 곳곳에서는 문질망둑을 잡는 낚시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겨울이면 굴 구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도로변 곳곳에 장사질을 이룬다. 더군다나 이맘때면 속살을 드러낸 갯벌에 쪼뽕어가 지천이다. 우리네 뱀배와 같은 배를 타고 '출치기 낚시'로 쪼뽕어를 잡는 어민들의 모습이 한쪽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얼마 전 아리아케해의 특산물을 파는 가게에서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다. 그들은 핑거를 들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충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먹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건 말린 '대갱이'(개소갱)였다. 내게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 줘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환정이 들렸다.

"아따, 운저리 그놈 참 맛나졌구만."

전라남도 영암군의 갯벌은 흙이 굵고 영양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생태계의 보고로 유명했다. 지금도 영암 사람들은 영암 갯벌을 최고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6년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화양면 사이에 거대한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갯벌이 사라졌다. 막대한 양의 농경지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대신 다양한 갯벌 생태계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갱이와 운저리도 자취를 감추었다.

대갱이(개소갱)는 새끼 장어처럼 가늘고 긴 형태를 가졌는데 머리 부분은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흉측하게 생겼다. 하지만 맛과 영양에선 장어를 능가했다. 말린 대갱이를 방망이로 통통 두들겨 불에 구워 술안주로 먹거나 갖은 양념으로 볶아 반찬으로 애용했다고 한다. 운저리(문질망둑)는 바닥이 진흙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갯 하나나 기수역에 서식한다.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 회, 무침,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조리법 가능한 팔방미인이다.

대갱이와 운저리 모두 갯벌이 있던 시절 영암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일상적인 식재료였다. 하지만 갯벌이 사라진 지금 대갱이는 수천만에서, 운저리는 해남과 무안에서 가져 온다. 그마저도 나이 든 사람들이 외엔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수요가 없어 줘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환정이 들렸다.

이제 영암군에서 운저리와 대갱이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은 거의 없다. 대신 순천과 무안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채 20년이 되지도 않은 세월 동안 영암 갯벌의 기억은 이렇듯 점점 흐릿해져 간다.

영암 갯벌에서 사라진 운저리와 대갱이가 아리아케해에서는 여전히 지역 특산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음식점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싱싱한 것은 회, 초밥, 조림, 된장찌개 등으로 먹고, 말린 것은 불에 구워 뜨거운 찜주에 우려먹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대갱이는 일본에서도 아리아케해에서 단 잡히는 생선으로 징그러운 생김새와는 달리 꽤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쪼뽕어와 마찬가지로 뱀배를 타고 다니며 끝을 갈고리가 달린 작대기로 뱀 속에 숨은 대갱이를 채 올린다. 쪼뽕어 집어와 더불어 아리아케해의 여름 풍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경에 민감한 어종이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으로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가 하면, 안정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덕분에 아직까지 아리아케해에서만 연간 40톤 정도의 대갱이가 잡힌다고 한다.

대갱이와 운저리가 사라진 영암 갯벌

자리에는 요즘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다. 원래 영암군 삼호읍 일대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딱히 잘되는 것이 없는 계곡 같은 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산강 하구 독이 생겨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농업용수 확보가 쉬워지고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계곡 같은 땅은 무화과 재배에 적합한 땅으로 변했다. 간척 사업으로 확보된 농경지는 차츰 무화과 밭으로 변했다. 덕분에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화과의 본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그 순환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무릇 사려저가는 모든 것들엔 애잔함이 깃들여 있다. 추억은 애잔함 때문에 더 강렬하고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난히 음식에 관한 추억이 많다.

2년 전 영암 5일장 어물전에서 싱싱한 운저리를 만났다. 무안에서 받아 온 것이 라 했다. 횡감으로 심어 마리를 삶다. 그걸 근처 식당으로 들고 가 옷돈을 얹어 주고 무척 주시사 부탁했다. 운저리의 부드럽고 담백한 삼겹살은 씹을수록 짙은 어운을 남겼다. 바로 그때 옆에서 식사를 하던 영감님이 한 마디 하셨다. "아따, 운저리 그놈 참 맛나졌구만..." <맛 칼럼니스트>

社說

민간공원 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 결과 공개를

민간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의 한 시민단체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협상 대상자 선정 시 광주시의 평가 점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시민평가단·심사위원회의 비중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문제 있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결과 공개 원칙을 공개 원칙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많은 의혹을 유발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광주시 정량평가·심사위원회 평가·시민평가단 평가 등 3자의 평점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참여 사업자의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협상 대상자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가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평가단과 심사위의 평가 점수 비중이 약해 협상 대상자 당락은 고사하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원 특례사업의 목적이 개발 사업자 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막아 시민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시민평가단과 심사위원회를 협상 대상자 선정의 틀리도록 세운 심사자가 아니라면 이들의 평가 점수를 비중 있게 올려야 할 것이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또다시 승소했지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강제징용으로 노역에 시달리고 배상조차 받지 못한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한을 풀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은 지난 8일 김영옥(85) 할머니 등 두 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할머니에게 1억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어린 여성들을 위협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요돼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게 했다"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할머니 등은 "돈도 벌게 해 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이틀처럼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끌려온 소녀들은 30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1999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잇따라 미쓰비시에 면죄부를 줬다. 국내에서는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고 1차 소송은 잇따라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죄와 보상을 하면서도 유독 한국에 대한선 식민지였다고 외면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며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 미쓰비시가 어린 소녀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일본 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졌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살과 교육 일반계 고교 이대로 좋은가(下)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진로·진학 모두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핵심은 우선 비차별적으로 일반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이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문자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와 다양성의 확산으로 오늘날 공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되었다. 성공 방식의 다양화와 각자가 원하는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그러한 설계에 따라 성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를 시켜주어야 한다. 공부 이외의 다른 다양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각자의 요구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학교 내에서 보다 체계적인 투트랙(two track)을 운영하자는 이야기이다.

투트랙은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핵심역량을 기르는

이외에도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특히 미래 자신의 먹거리인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학교는 현재와 같은 편협한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처럼 학생들이 알아서 그것을 찾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체계를 제공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교과정에서도 학업 프로그램(진학)과 취업 연계 직업교육(진로)의 강화가 중요하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 진학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가령, 기초적 학습능력, 일반적 역량, 그리고 인성 등. 공통과정의 이수 이외에도 세분화 하여 공부로 성공할 학생들에게는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여야 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비차별적 입문자들에게는 수요자가 원하는 직업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다수 학

생들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진로 관련 제도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 내 직업 프로그램의 활성화, 직업학교와 연계한 직업교육, 위탁 직업학교 운영,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직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마이스터고 등을 포함한 전문계고를 확대해 진학부터 비차별 일반계고 입문자들에게 문호를 넓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전체 고등학교를 리셋해야 한다. 기존 학교의 다양화(가령, 특목고, 외고, 자사고 등)에 대한 재검토 외에도 학교 내에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인 교과학점제 및 전공별 계열화에 대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학생 개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갈수록 저하되는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학과 진로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기고



김영미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역 미래산업과 인재육성

우선,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 방안이다.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 미래산업으로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전력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하면서부터다. 한전이 앞장서서 추진한 에너지밸리 조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 설립도 국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활당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빛가람혁신 도시는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매년 신규인력을 뽑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배려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에 앞서 수도권 기업의 유치를 증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입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막론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주말에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도록, 교육·문화관광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문화관광산업 분야 인재육성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관광산업은 이른바 '골목 없는 산업'으로 잘 알려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광주·전남의 관광은 그동안 점진성이 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여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여수 밤바다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이 관광광장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광주·전남 지역 관광분야 고용실태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 따라서 영세한 관광업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다. 더불어 초·중·고·대학, 유니폼 지급 등 근로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유도해야 한다. 관광업체들은 멀리 내다보면서

ICT 기반 스마트관광, MICE관광, 의료 웰니스 관광, 해양레포츠 관광에 대한 시설 확충과 서비스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광분야 고용양상은 공직인 영역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최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별 관광투레PD들을 조직화하여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거나, 광주·전남 관광의 홍보·세일즈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양 시·도가 공동출자하여 마케팅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관광마케팅 전담 기구는 지역 출신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문화관광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고용 안정화도 추구할 수 있다. 지역 대학 또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이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감성과 기회를 고려할 때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은 빼놓을 수 없는 미래산업이다. 이 분야 지역인재 육성이 중요할 이유다.

無 等 鼓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서 있을 때 늘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짙은 회색의 철제 쓰레기통이다. 좁은 입구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영 번거롭게 두었다. 무거운 느낌의 색깔도 왠지 답답해 보였다.

지난 봄 광주시 동구청이 총장로 1가 입구에 설치한 '새로운' 모양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이거다" 싶었다. 칸을 나눠 페트병과 종이컵 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했고, 입구도 넓혀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었다. 아직 분

대부분 봉투를 구분해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으로 무엇보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눈을 사로잡는다.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설치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아 보인다. 한두 가지 색깔로 포인트를 주거나, 간단한 장치로 미적 매력을 뽐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봄 총장로 1가 입구 쓰레기통을 발견했을 때 반가우면서도 아쉬웠던 게 바로 디자인이었다. 딱딱한 관청에서 발

동구청 쓰레기통

준한 느낌이 바로 드는 데다 어찌 보면 너무 촌스러운 구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진 이용자들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뀐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광주는 디자인이벤탈레가 열리는 도시지만 '생활 속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는 어렵다. 2013년 디자인이벤탈레 당시 구청 총량제 봉투에 '예술투'를 갈아입힌 적이 있다. 동물원이 있는 북구의 봉투엔 펠리크와 코끼리가, 송정역이 있는 광산구 봉투에는 기차 창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졌다.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삶이 있는 디자인이 필요할 때다. 거리의 쓰레기통부터 바꿔 보는 게 어떨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현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발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